### 지역 **메 아 리**

### 정읍시, 과학관 스탬프 투어 실시

정읍시가 2019~20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6월부터 정읍 과학관 스탬프 투어를 시작하다.

스탬프 투어는 정읍 참단과학관과 국립전 북기상과학관을 찾아가서 스탬프 인증을 완성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투어다. 참여 대상 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며 6월 1일부 터 운영된다.

신정동에 위치한 참단과학관은 한국원지력 연구원 참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 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등 정읍에 소재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분 야 소개와 개발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 40 입체영상관 영화상영을 통해 유치원 생과 초등학생들에게 흥미를 주며 각종 체험 을 통해 과학을 이해하고 감성을 깨우고 있 기도 하다.

정읍 상교동에 위치한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은 기상과 천문이 융합된 특성화 과학관이다.

천체 투영실, 천제 관측실, 가상현실 체험 관, 기상예보, 4D 영상관 등 체험교육 중심의 시설을 갖추고 스토리텔링 방식의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첨단과학관과는 약 8km 정 도 가리를 두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화재 복합대응훈련 실시

정읍시가 29일 민·관·군·경 합동훈 련으로 주민안전 시민행복 을지태극연 습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

을지태극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훈련에는 140여명의 주민과 봉사단체 회원, 여성민방위대원, 소방관, 경찰,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시기동 삼화그린아파트 일대에서는 주 민 화재대피훈련과 고층화재 인명구조훈 련, 화재 초동진압 훈련, 화재 구급 환자 이송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심폐 소생술 교육 등 입체적인 화재 복합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한국산업로프협회(회장 김종호)는 소방 헬기와 구조차 접근이 어려운 고층이파 트에 고립된 주민 10여 명을 화재현장에 서 탈출시키는 시범 훈련을 펼쳤다.

특히 협회 보유기술인 로프 이용 접근 기술을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정읍소방서는 소방차 출동 구간에서 소 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고공 아파트 화재 방수진압 훈련, 화재 구급 환자 이송훈련 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 여성민방위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과 소화기를 이 용한 화재 초동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또 정읍해병전우회와 한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읍경찰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구간에서 교통소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시기동주민센터는 주민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내장산 솔티마을에서 '2019 한국 생태관광 네트워크 생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 일상 벗어나 삶의 여유를!

### 정읍 내장산 솔티마을, 내일 한국생태관광네트워크 생태마당 개최

생태계의 보고이자 마을연금으로 알려진 내장산 솔타마을에서 2019 한국생태관광 네트워크 생태마당 행사를 개최하다.

내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행시는 생태관광의 발전과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미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전국 26개 지역 대표들과 참 가자, 환경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 200 여 명과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다.

행사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느끼는 건강마당, 산 좋고 물 좋은 솔타마을에서 느끼는 감동 마당, 관객과 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마당 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솔타마을생태축제와 함께 한국생태관광네트워크의 5개권역(강원경북권역, 영남권역, 경기충청권역, 전라권역, 제주다도해권역)에서 준비한 공연과 마을프리패스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 날은 전국 생태관광지역의 사례발표와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는 생태관광전국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솔디마을의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마을공동체의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장산 솔티마을은 2018년 1월 고창군

운곡습지에 이어 전북지역 두 번째로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마을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하여 전국 최초

로 미을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글로벌 공동체한미당행사 에서 대상을 수상하 는 등 전국 최고의 생태계를 간직한 공

동체마을이다. 솔티생태관광협동조합 송정섭 이시장 은 "2019 한국 생태관광 네트워크 생태 마당 행사를 통하여 솔티마을의 역사, 문화, 생태관광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생 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국에 널 리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

창군 했다.

## 부안군, 문화가 있는 날 상설공연 성황리 마쳐

부안군은 '함께 놀아야 문화다'를 테마로 지난 28일 문화가 있는 날 상 설공연을 부안 물의거리에서 가졌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선이 고운 전통무용으로 사랑받는 예화무용단과 역동적인 비보잉으로 관 객을 사로잡는 이스트기네스 가 출 연했다. 공연은 전통음악을 현대적 으로 재해석하여 전국 무대에서 관 객에게 사랑받는 예화무용단의 매창 테마무용으로 시작됐다. 아름다운 몸짓의 무용이 이스트기네스 의 파 격적인 비보잉과의 협연으로 이어지 면서 관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번 상설공연은 학생부터 외국인 까지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의 주민 300여명이 함께 관람했다.

공연팀과 관객은 하나 되어 호흡을 맞추면서 '함께 놀아야 문화다'라는 테마의 공연을 함께 즐겼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김대화 기자

# "원전 안전에 문제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 고창군의회, 대책 강구 성명서 발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29일 "한국수력원자력는 원전 안전에 문제 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 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광 한빛원전 1호기에서 최근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 열출력 제한치를 초과해 즉각 원전을 세워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 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가까이 더 가 동했다.

특히 면허도 없는 자가 제어봉을 조작하여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기준 인 5%를 넘어 18%까지 급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10일이 지난 뒤에야 사용정지와 특별조사를 시행했다며 원전이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에 대하여 고창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운전자의 자격, 감독자의 임무 등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자책을 수립 ▲원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 ▲전문가와 함께 비상시의 행동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근 주민에게 비상시에 대처하도록 교육・홍보할 것을 주문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최대 20만원까지

부안군은 오는 6월부터 영세 소상공 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 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카드수 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년도(2018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 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소상공인은 전년도 매출액 확정 신고(5월) 이후인 오는 6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관련서류(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 전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부인군

청 미래전략담당관 또는 읍·면사무소 에서 접수하면 된다.

에서 접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인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인군 관계자는 "현재 1만원 이하 소 액 카드결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 상공인들에게 부담이 큰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 기를 기대한다"며 "지역내 소상공인은 부인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지원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난 28일 부안컨벤션웨딩홀에서 부안문화원장 이 ·취임식이 열렸다.

## "지역문화 꽃피우는 견인차 역할 할 것"

### 부안문화원장 이ㆍ취임식 개최… 김영렬 원장 취임

부안의 지역문화를 이끌어 오던 김원철 부안문화원장 이임식과, 김 영렬 신임 부안문화원장 취임식이 있었다.

부안컨벤션웨딩홀에서 치러진 이 취임식에서는 권익현 군수, 김종회 국회의원, 이한수 군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나종우 전북문화 원연합회 회장, 도내 14개 문화원 원장, 문화원 회원 등 200여명이 참 석한 기운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진행됐다.

김원철 원장은 부인이 넣은 조선 의 시인 이매청을 재조명 하고 동 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위상을 높 여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을 향상시 켰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정착과 미래 주역을 만 들고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했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한 부인군지 편찬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부인의 역사, 문화, 자연, 경제, 산 업을 총 망라하는 부인의 발자취를 군지에 담는 등 부안 지역문화의 원로로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 해왔다.

9대 문화원장에 새롭게 취임한 김영렬 신임 원장은 원광대학교 행 정대학원 최고 정책관리자 과정을 수료했고, 부안군 산립조합 상무로 퇴임했다.

서립라이이온스클럽 회장과 민주 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 며, 현재는 한국문인협회 부안지부 장과 바르게살기운동 부안군협의 회 부회장, 부안군 애항운동본부 이사 등을 맡으며 부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부안문화원이 부안의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견인차 역할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화원 관계 지는 "부안문화원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